

북미지역 iSchool 대학과 L-School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Curriculum of iSchools and L-School in North America

김 희 섭 (Heesop Kim)**

남 권 희 (Kwon Hee Nam)***

강 보 라 (Bora Kang)****

목 차

- | | |
|---------------------|--|
| 1. 서론 | 3.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교과과목 분류방법 |
| 1.2 연구방법 및 연구한계 | 4. 결과 분석 |
| 1.3 선행연구 | 4.1 교과과목의 구성 비율 |
| 2. 이론적 배경 | 4.2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교육과정 비교 |
| 2.1 iSchool 개관 | 5. 결론 및 제언 |
| 2.2 iSchools의 연구 분야 | |
| 3. 연구 설계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미의 iSchool 대학들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 17개 iSchool 대학 집단과 동일한 수의 L-School 대학 집단을 선정하였다. 해당 대학의 대학원 개설 교과목 정보는 주로 해당 대학 공식 웹사이트와 전자메일 문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교과목은 8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아울러 L-School 대학 집단과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19.0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 차이분석을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iSchool 대학 집단의 개설 교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보학', '실습연구',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영역이 높은 순위를 보였고, L-School 대학 집단의 개설 교과목 영역과 차이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은 더 낮게,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실습연구' 영역은 더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of iSchools in North America. To achieve the aim of the study 17 iSchools and the same number of L-Schools were chosen from the same regional area. Data were collected mainly through each of their official websites and email inquiry. The graduate courses were classified into 8 domains judging by its title, and conducted t-test for a comparative analysis with L-School curriculum using SPSS 19.0.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Studies', 'Practicum and Stud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domains were dominant in iSchool curriculum. In the comparative analysis, 'Stud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main showed lower percentage, whereas 'Information Studie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Practicum and Study' domains showed higher percentage than the L-School curriculum.

키워드: iSchool, L-School, 북미 문헌정보학 교육, 교육과정, 비교분석

iSchool, L-School, LIS Education in North Americ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Comparative Analysis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eesop@knu.ac.kr) (교신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대학원(brkang88@daum.net) (제1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10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1월 2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95-314,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29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어 수많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 정보의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고, 아울러 정보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하여 정보 체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발전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문헌정보학계는 정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시작하였다(Bonnici, Subramaniam, and Burnett 2009).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같은 정보기술 응용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과 이용자 그리고 정보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 육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논의는 1988년 미국의 Pittsburgh 대학교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s 학과장 Toni Carbo가 주축이 되어 Syracuse 대학교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의 Donald Marchand, 그리고 Drexel 대학교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의 Richard Lytle의 비공식적인 모임인 Gang of Three이 결성되면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르러 이 모임의 참가대학은 10개교로 늘어났고, "information school" 혹은 "iSchool"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이들 모임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iSchools Caucus" 혹은 "iCaucus"로 불리게 되었다(iSchool Homepage 2013).

2013년 9월 현재 세계 15개국의 52개 대학이

iCaucus에 가입하여 공통의 관심인 iSchool 운영방식을 접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정보(Information), 기술(Technology), 사람(People)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인간 활동에서 정보의 역할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며, 아울러 과학, 경제, 교육, 문화의 발전을 위해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정보전문가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iSchool Homepage 2013).

한편 이러한 세계 주요 대학들의 iSchool로의 전환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국내 대학은 2009년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한 서울대학교이다. 현재, 학제적으로 통합된 현장 중심형 전문 인력과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해 융합과학부를 운영 중에 있다.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기존의 학과를 iSchool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내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iSchool 도입'이라는 과제를 2011년부터 수행 중에 있다.

iSchool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iSchool의 교육 목적과 내용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과정(Curriculum)의 분석이야말로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일정한 교육의 목적에 맞추고, 교육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말하는데(위키백과 2013), 보다 넓은 의미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 교수활동 및 자세까지 확장하여 말할 수 있으며, 교육 접근 자체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미의 iSchool 대학들과 북미의 L-School¹⁾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iSchool 대학의 교육과정의 특징

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한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방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iSchool 대학과 비교대상인 iSchool 미진입 대학(이하 L-School) 집단의 수적인 측면이 각각 가장 풍부한 북미지역 대학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북미지역의 iSchool 대학은 iSchool 공식 홈페이지(ischools.org)의 디렉토리에서 17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비교대상인 L-School은 US News & World Report(www.usnews.com/education)에서 제공하는 2013년 문헌정보학과 평가 순위 50위 내에서 iSchool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 중 상위 순위대로 17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셋째, 자료 수집은 주로 해당 대학의 2012/2013년 학기용 홈페이지와 필요시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의, 그리고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분석은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을 채택하였다. 교육내용 분석은 개별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개설중인 교과목의 명칭을 분석하여 국내 선행연구(남영준, 허운순 2005;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최상기 외 2011)에서 사용한 구분에 따라 크게 (1) 문헌정보학일반, (2) 정보조직학, (3) 정보조사제공학, (4)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5) 정보학, (6) 서지학, (7) 기록관리학, (8) 연구·실습으로 총 8개 분

야로 구분하였으며, 이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과목은 기타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과목명이 합성어나 연결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주제로 분리하여 주요 키워드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여섯째,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9.0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 간의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차이 분석을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1.3 선행연구

1.3.1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목 분석에 관한 연구

남영준과 허운순(2005)의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주제전문사서 배치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더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 제시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정주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엄영애(2009)는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적용시킨 결과로 문헌정보학의 교과목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정재영(2011)은 문헌정보학은 실용학문임에도 기본서 혹은 개론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과

1) L-School은 iSchool에 진입하지 않은 대학으로 iSchool과 대비되는 용어로 Lopatovska et al.(2012)의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을 본 논문에서도 채택하여 사용함.

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접목시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함을 역설하며, 분야별, 이용자별 특성에 따른 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2)는 학교마다 필수, 선택, 핵심 영역별 교과목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을 기초로 전공영역별 표준교과목을 제안하였다.

1.3.2 국내와 국외 교과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장윤금(2011)은 미국, 호주의 교육체계와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파악하여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iSchool에서의 학제적 교육을 강조하며 학과명을 “School of information” 혹은 “Information studies”로 개칭하여 정보 중심의 학문을 비중있게 다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국내 교육현장 역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며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상기 외(2011)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을 대처하기 위한 현장형 사서가 필요함에도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는 현장형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헌정보학의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과과목을 세분화하여 빈도, 비율, 총 개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승채(2012)는 USC(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문헌정보학의 학위과정별 목적에 따른 운영방법과 교과목 분석 등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국내 교육과정 실정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수과목의 순서 설정과 필수과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위별 교육목적을 설정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1.3.3 iSchool 관련 국외 연구

Chen(2008)은 19개의 iSchools 구성원들의 출판물을 통해 연구 주제의 변천사항과 주 연구 분야를 요인 분석 후 요소별 상관관계를 주제지도(Thematic Map)과 저자-개념 지도(Author-Concept Map)로 표현하여 연구 주제와 동시인용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기관별 협력사항을 지리공간 지도(Geospatial Map)로 분석한 결과 유럽과 일본 간의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Bonnici, Subramaniam 그리고 Burnett(2009)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특성을 알아보고자 iSchool과 ALA 인가를 받은 문헌정보학과로 구분하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진 채용공고, 교육프로그램 혹은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또한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의 교육과정 변화를 알아보고자 교과목을 키워드로 추출한 후 애벗(Andrew Abbott)이 사용한 프랙탈 이론(Fractal theory)²⁾을 원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

2) 미분과 적분이 되지 않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고 데카르트 때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1974년 프랑스의 만델부르트가 리아스식 해안이나 구름의 모양처럼 미세한 것을 계산해낸 이론으로,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과 ‘순환성(Recursiveness)’이라는 속성을 기하학적으로 푼 것으로 프랙탈은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 2001년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앤드류 애벗의 저서 “Chaos of Disciplines”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됨.

문이 기술변화에 따라 발전하지만 프랙탈 사이클(Fractal cycle) 적용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 대신 용어가 재 개념화되고 의미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drea와 Sawyer(2012)는 iSchool 교수진과 연구원에 관한 채용공고 분야와 소속 교수들의 연구 분야를 분석한 결과 컴퓨팅(Computing)이 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보(Information)가 11%인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특정 과목에만 치중하여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놓치던 iSchool 도입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iSchool은 융합적 교육 모델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자 양성 기대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해 학과간의 통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iSchool 개관

미국 대학의 경우 학과 명칭에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4년 Pittsburgh 대학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대학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974년 Syracuse 대학에서는 통신과 컴퓨팅의 발전을 예측하고 School of Library Science를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로 개칭하였다. 반면 Chicago, Minnesota, Columb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포함한 15개 이상의 대학에서는 정보 기술 발전에 대한 빠른 대처에 실패하며 학과가 폐쇄되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기에 많은 학교가 '정보'라는 용어를 학과 명칭에 추가하

여, 대부분은 Library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Olson and Grudin 2009).

1980년대 ALA 승인 중단과 1990년대 디지털 기술로 인해 미래 도서관과 출판이 위협받으며, 문헌정보학계는 생존전략으로 정보기술 관련 분야로 합병 혹은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몇몇 대학은 기존의 학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학과간의 통합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진 채용 등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School을 발전시켰다(Chen 2008).

iSchool의 태동은 앞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에 공식화되었다. 2013년 9월 현재 세계 15개국의 52개 대학에서 iSchool에 참여하고 iCaucus의 일원이 되어 정보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별 참여는 미국이 26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5개 대학, 호주가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국가별 iSchool 참여 현황
(2013년 9월 현재)

국가	참여대학 수
네덜란드	1
덴마크	1
독일	2
미국	26
스웨덴	1
스페인	2
싱가폴	1
아일랜드	1
영국	5
일본	1
중국	2
캐나다	2
포르투갈	2

국가	참여대학 수
프랑스	1
핀란드	1
호주	3
합계	52

이들 참여대학들은 매년 두 번씩 iConference를 개최하며 교육과정과 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iSchool 정체성에 대하여 Chen(2008)은 학술 및 연구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주축으로 사람, 정보,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교수진이 구성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기초와 복합 학문의 사고를 갖추어야 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iSchool 운동의 공통적인 개념모델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수용이며, 문헌정보학계에 직면한 문제, 기회, 도전을 iField(information Field) 안에서 해결하고자 정보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2 iSchools의 연구 분야

iSchool의 등장과 iCaucus 설립은 전통 문헌정보학과 연구 분야의 재구조화와 확장을 자극하였다. 단일학과만으로는 정보전문가 양성에 제한이 있으며, 정보의 이해와 관리를 위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와의 학제적 연구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iSchool 교수진의 전공분야 구성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Wu(2012)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2010년 27개의 iSchools 중 영어권에 속한 25개의 iSchool은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과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이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경영경제학(Business and Economics)과 공학(Engineering)이 7%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또한 Wu(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Schools 교수진의 가장 집중적인 연구 주제 분야는 HCI

〈표 2〉 25개 iSchool 교수진의 전공분야(Wu 2012)

전공 분야	명	비율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232	28%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8%
경영경제학(Business and Economics)	58	7%
공학(Engineering)	55	7%
교육학(Education)	51	6%
예술 및 인문학(Arts and Humanities)	45	6%
심리학(Psychology)	31	4%
수학 및 물리학(Mathematics and Physics)	30	4%
신문방송학(Communication)	28	3%
사회과학(Social Science)	19	2%
기타(Other science)	14	2%
법학(Law)	12	2%
의학 및 공중보건학(Medical and Public Health)	9	1%
전체	815	100%

〈표 3〉 iSchool 교수진의 연구 분야(Wu 2012)

연구 분야	명
HCI 혹은 인간중심 설계(Human-centred design)	111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90
쇼셜웹(Social Web)	89
교육(Education)	87
지능 관련분야(Intelligence Related)	82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cs)	71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70
네트워크 기술(Network Technology)	68
도서관 경영(Library Management)	66
보안(Security)	52

(Human Computer Interface) 혹은 인간중심 설계(Human-centred design)이며, 다음으로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과 쇼셜 웹(Social web)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는 Chen(2008)의 연구결과에서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이 주요 연구 분야였던 것과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iSchool의 연구 분야는 정보, 기술, 인간의 융합적인 이해를 강조하며 정보의 다양한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으로 iSchool의 경우는 iSchool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52개의 회원기관 중 북미 지역의 28개 대학을 선별한 후, 학위별 교육과정 정보가 뚜렷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여 총 17개 대학(미국 15개교, 캐나다 2개교)을 선정하였다.

L-School의 경우는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제공하는 2013년 문헌정보학과 평가 순위 50위 내에서 iSchool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 중 상위 순서대로 17개 대학(미국 17개교)을 선정하였다(〈표 4〉 참조). 이들 연구대상의 학과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교수진 구성, 학위별 교과과목을 조사하였다.

교과과목은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별로 구분하여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으나 조사 과정 중 몇몇 대학은 학위별 교과과목이 불분명하거나 학위 구분 없이 전체 교과과목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졸업이수 학점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 이 연구에서는 학사과정은 제외하고 석사와 박사 구분 없이 단일의 대학원 교과과목으로 데이터를 코딩하였다.

3.2 교과과목 분류방법

수집된 교과과목의 영역별 구성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자 남영준, 허운순(2005),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2), 그리고 최상기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과목 분류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도출된 전공특성에 따라

〈표 4〉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34개의 대학 리스트

No.	iSchool 대학	국가	L-School 대학	국가
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	Simmons College	미
2	University of Toronto	캐	University of Tennessee	미
3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	Wayne Sate University	미
4	Florida State University	미	University of South Florida	미
5	Indiana University	미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
6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미	University at Albany - SUNY	미
7	Syracuse University	미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미
8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미	University of Alabama	미
9	University of Kentucky	미	University of Arizona	미
10	University of Maryland	미	San Jose State University	미
11	University of Maryland - Baltimore	미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미
12	University of Michigan	미	Dominican University	미
1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미	Emporia State University	미
14	University of Pittsburgh	미	Louisianan State University	미
15	University of Texas, Austin	미	Long Island University	미
16	University of Washington	미	University of Rhode Island	미
17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미	Texas Woman's University	미

상위 영역을 크게 (1) 문헌정보학일반, (2) 정보조직학, (3) 정보조사제공학, (4)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5) 정보학, (6) 서지학, (7) 기록관리학, 그리고 (8) 실습·연구로 구분하였다. 남영준, 허운순(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별연구, 인턴십, 세미나, 논문, 실습, 연구지도, 현장실습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교과명을 포함시켰다. 앞서 제시한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과목은 기타로 분류하여 총 8개의 영역으로 교육과

정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주제에 따라 우선 1차 분류한 후, 과목명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재분류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면, "Children's Literature Service and Collection"과 같이 합성어나 연결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분류표를 참고하여 Children's Literature Service는 '정보조사제공학'으로, Children's Literature Collection은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으로 분리하여 재정리하였다.

〈표 5〉 교과과목 분류표

영역	교과과목의 예
문헌정보학일반 (11)	교수방법론(Instruction and Assistance System) 도서관사(History of Libraries) 도서관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 and Libraries) 문헌정보학입문(Study i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문헌정보학주제(Topic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영역	교과과목의 예
문헌정보학일반 (11)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저작권(Copyright)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정보윤리(Information Ethics) 정보환경(Information Environments) 지적재산권(Legal issues)
정보조직학 (4)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s) 메타데이터 이론 및 실제(Metadata in Theory and Practice) 목록 및 분류(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정보자료조직(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정보조사제공학 (22)	건강정보서비스 및 자원(Health Sciences Info Services and Resources) 경쟁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 과학정보원 및 서비스(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iences) 독서 및 독자(Reading & Readers) 리터러시(Literacy) 멀티미디어정보원 및 서비스(Multimedia Resources and Services) 법률정보원(Legal Resources) 비즈니스 정보(Business Information) 사회과학정보원 및 서비스(Information Source Social Sciences) 성인정보원 및 서비스(Resources and Services for Adults) 소비자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어린이자료(Children's Literature) 예술과 인문정보원 및 서비스(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 the Arts and Humanities) 음악정보서비스(Music Librarianship) 이용자교육론(User Education) 정보이용 및 이용자(Use and Users of Information) 정보접근(Information Access)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 참고 및 정보서비스(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청소년자료(Young Adult Literature) 커뮤니티이용(Information Use in Communities)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17)	경영론(Principles of Management) 공공도서관 경영(Public Library Management) 도서관·정보센터운영 및 경영(Administration &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 도서관마케팅 및 기획(Marketing and Planning for Libraries)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Leadership in Theory and Practice) 법학도서관운영(Law Library Administration) 어린이 및 청소년공공도서관 운영(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y Work with children and Young Adults) 인사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장서개발 및 관리(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영역	교과과목의 예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17)	재무관리기법 및 서비스(Financial Management) 전문장서(Special Collections) 정보경제학(Economic of Information)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정보기관 경영(Information Organization)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프로그램 및 서비스평가(Evaluating Programs and Services)
정보학 (27)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네트워크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Network Information Systems)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운영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Data Administration Concepts and Database Management) 도서관자동화시스템(Library Automation Systems)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ies)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색인 및 초록(Indexing & Abstracting) 시맨틱 웹시스템(Semantic Web System) 시스템분석 및 경영(Systems Analysis and Management) 온라인정보시스템탐색(Searching Online Information Systems) 웹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for the Web) 웹 구조 및 정보 아키텍처(Web structures and Information Architecture) 이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인포매틱스(Informatics) 전자출판 및 정보프로세싱표준(Electronic Publish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정보검색론(Implement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시스템설계(Design of 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프로젝트관리(Managing Information System) 정보학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 지식네트워크시각화(Visualizing and Navigating Knowledge Networks) 커뮤니티시스템(Community System)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래밍(Programming) 프로그래밍언어(Programming Language) 휴먼 정보 상호작용(Human Information Interactions)
서지학 (6)	기술서지(Descriptive Bibliography) 도서 및 인쇄사(History of Books & Printing) 서지통정(Bibliography Control) 서지학(Bibliography) 출판 및 도서관학(Book Publishing and Librarianship) 희귀도서 및 특수장서론(Rare Books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ianship)
기록·관리학 (13)	기록 및 필사본서비스(Archival and Manuscript Services) 기록관 및 기록관리개론(Introduction to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기록관운영(Archives Administration) 기록물조직/관리(Organization/Management of Archival Collections)

영역	교과과목의 예
기록·관리학 (13)	기록물평가(Archival Appraisal) 기록자료접근시스템(Access Systems for Archival Materials) 기록정보역사(History of Recorded Information) 도서관 및 기록관 자료보존(Preservation of Library and Archive Materials) 문화유산리포지터리접근(Cultural Heritage Repositories) 아웃리치(Outreach)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 전자 기록물관리(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정부간행물(Government Publications)
실습·연구 (13)	개별연구(Independent Study or Research) 논문(Thesis) 박사연구(Doctoral Research) 석사논문(Master's Paper) 세미나(Seminar) 실습(Practicum) 연구지도(Directed Research) 워크샵(Workshop) 인턴쉽(Internship) 캡스톤(Capstone) 컨소시엄(Consortium) 콜로키엄(Colloquium) 현장연구(Fieldwork)

4.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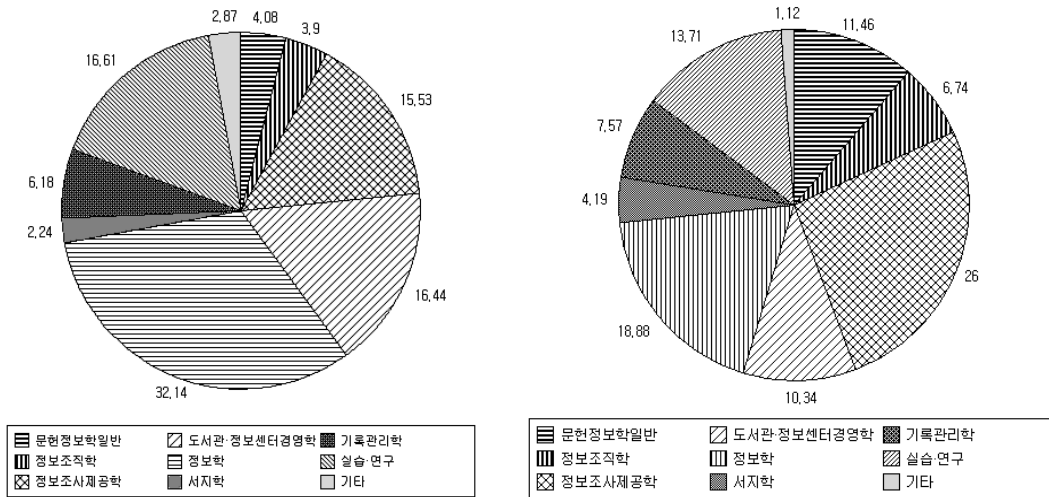
4.1 교과과목의 구성 비율

교과과목을 주제에 따른 영역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iSchool의 경우는 '정보학'(32.14%), '실습·연구'(16.61%),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16.44%), '정보조사제공학'(15.53%), '기록관리학'(6.18%), '문헌정보학일반'(4.08%), '정보조직학'(3.90%), '기타'(2.87%), 그리고 '서지학'(2.24%) 순서대로 나타났다. iSchool의 경우, '정보학' 영역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실습·연구',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그리고 '정보조사제공학'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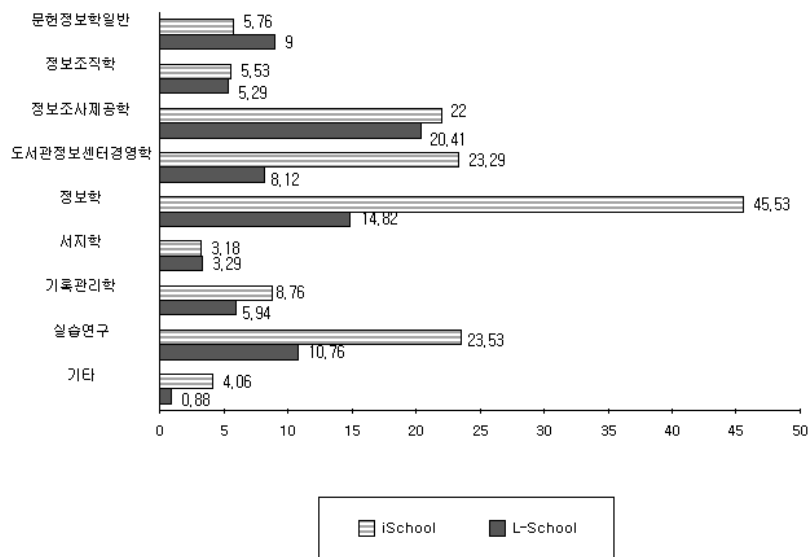
반면 L-School의 경우는 '정보조사제공학'(26.00%), '정보학'(18.88%), '실습·연구'(13.71%), '문헌정보학일반'(11.46%),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10.34%), '기록관리학'(7.75%), '정보조직학'(6.74%), '서지학'(4.19%), 그리고 '기타'(1.12%)로 나타났다. L-School의 경우, '정보조사제공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정보학'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록관리학'과 '정보조직학'에 이어 '서지학'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2〉 참조).

참고로 두 집단의 영역별 교과과목의 평균은 〈그림 3〉에서 비교하였다.



<그림 1> iSchool 대학 집단의 교과과목 구성 비율

<그림 2> L-School 대학 집단의 교과과목 구성 비율



<그림 3>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의 영역별 교과과목 평균 비교

4.2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교육과정 비교

iSchool과 L-School 간의 주제 영역별 교육

과정 차이 여부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 도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9.0를 활용하여 임계값을 .0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문헌정보학일반 영역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문헌 정보학 일반	등분산이 가정됨	.182	.673	-2.060	32	.048	-3.235	1.571	-6.435	-.03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60	31.857	.048	-3.235	1.571	-6.435	-.035

4.2.1 문헌정보학일반 영역

〈표 6〉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대학 두 집단의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은 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값이 .048로 나타나 교과과목 편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없다. 이 결과를 근거로 〈그림 3〉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iSchool 대학들(평균 5.76개)은 L-School 대학들(평균 9개)에 비하여 ‘문헌정보학일반’ 관련 개설 교과과목의 수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과목별 개설 수는 상이하였지만,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대학도서관(Academic Libraries), 저작권(Copyright), 정보윤리(Information Ethics), 전문주제(Special Topics),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ies), 법학도서관(Law Libraries) 등 많은 과목들이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2.2 정보조직학 영역

〈표 7〉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의 ‘정보조직학’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evene 등분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값이 .871로 나타나 대체로 ‘정보조직학’ 영역의 개설 교과과목의 편성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두 집단 간에는 개설과목의 수와 더불어 목록(Cataloging), 분류(Classification), 메타데이터(Metadata), 주제명표목(Subject Heading), 분류학(Taxonomies),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s) 등의 교과목 편성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정보조직학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보 조직학	등분산이 가정됨	4.233	.048	.163	32	.871	.235	1.440	-2.697	3.16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63	27.880	.871	.235	1.440	-2.714	3.185

〈표 8〉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정보조사제공학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보 조사 제공학	등분산이 가정됨	2.813	.103	.396	32	.695	1.588	4.011	-6.582	9.75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96	26,251	.695	1.588	4.011	-6.653	9.829

4.2.3 정보조사제공학 영역

〈표 8〉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의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 값이 .695로 나타나 대체로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의 개설 교과과목의 편성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집단 간에는 개설과목의 수와 더불어 자원(Material), 자료(Literature), 서비스(Service), 리터러시(Literacy), 참고자료(Reference) 등의 교과목 편성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2.4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영역

〈표 9〉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대학 두 집단의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근거로 〈그림 3〉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iSchool 대학 집단(평균 23.29개)은 L-School 대학 집단(평균 8.12개)에 비하여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관련 개설 교과과목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 간에는 도서관마케팅(Libraries Marketing),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 정보환경(Information Environment),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정책(Policy) 등의 공통된 교과목 편성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iSchool 대학들의 경우 경영학 등의 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학과들과의 연계로 개설 교과과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L-School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발

〈표 9〉 두 집단 간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등분산이 가정됨	17.817	.000	3.364	32	.002	15.176	4.511	5.988	24.36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64	18,344	.003	15.176	4.511	5.712	24.641

달군집(Developing Communities), 협의(Negotiation), 정보보증정책(Information Assurance Policy), 보건정보환경(Health Sciences Information Environment), 온라인커뮤니티권한(Authority in Online Communications) 등 보다 확장된 범위의 교과과목이 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2.5 정보학 영역

〈표 10〉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의 ‘정보학’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근거로 〈그림 3〉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iSchool 대학 집단(평균 45.53개)은 L-School 대학 집단(평균 14.82개)에 비하여 ‘정보학’ 관련 개설 교과과목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I-School의 경우 L-School와 달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과 온라인정보검색(Online Information Retrieval) 교과과목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윤리(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Ethic),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정(Telecommunication Regulation),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 네트워크기술(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Network Technology) 등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s) 관련 과목과 네트워크 관리(Network Administration), 네트워크 & 분산시스템 보안(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네트워크 코딩(Network Coding), 네트워크 디자인(Network Design) 등 네트워크(Network) 관련 과목 그리고 보건관리 지리 정보시스템(Health Care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보건관리 정보보안(Health Care Information Security), 보건정보 검색(Health Information Retrieval) 등과 같이 보건정보학(Health Care Information) 관련 과목이 상당수 차지하였다. 이는 아마도 학제적 연구를 추구하는 iSchool 운영방법에 따라 정보학에, 컴퓨터과학, 네트워크 등 보다 세분화된 정보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들의 연계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2.6 서지학 영역

〈표 11〉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의 ‘서지학’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값이 .928로 나타나 대체로 ‘서지학’ 영역의 개설 교

〈표 10〉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정보학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보학	등분산이 가정됨	15.612	.000	3.445	32	.002	30.706	8.912	12.553	48.85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445	24.099	.002	30.706	8.912	12.317	49.095

〈표 11〉 두 집단 간 서지학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서지학	등분산이 가정됨	1.434	.240	-.092	32	.928	-.118	1.283	-2.732	2.49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92	30,988	.928	-.118	1.283	-2.735	2.500

과과목의 편성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서지학(Bibliography), 바인딩(Binding), 도서 및 인쇄사(History of Book and Printing), 인쇄(Printing), 희귀도서(Rare Book) 등의 교과목을 유사하게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2.7 기록관리학 영역

〈표 12〉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의 ‘기록관리학’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 값이 .329로 나타나 대체로 ‘기록관리학’ 영역의 개설 교과과목의 편성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의 주요 과목명

의 키워드는 기록물(Archives), 기록물(Records), 문화정책(Culture Policy), 전자문서보존(Electronic Recordkeeping),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로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8 실습·연구 영역

〈표 13〉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인 iSchool과 L-School 두 집단의 ‘실습·연구’ 영역에서의 교과과목 편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근거로 〈그림 3〉을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iSchool 대학 집단(평균 23.53개)은 L-School 대학 집단(평균 10.76개)에 비하여 ‘실습·연구’ 관련 개설 교과과목의 수가 상당히 많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L-School 대학 집단은 실습 과목이 특정 전공

〈표 12〉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기록관리학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기록 관리학	등분산이 가정됨	2.004	.167	.991	32	.329	2.824	2.850	-2.983	8.63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91	29,495	.330	2.824	2.850	-3.002	8.649

〈표 13〉 iSchool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실습·연구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실습 연구	등분산이 가정됨	2.668	.112	3.865	32	.001	12.765	3.303	6.037	19.49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65	28.002	.001	12.765	3.303	5.999	19.530

에 한정하여 개설하고 있는 반면 iSchool 대학 집단은 고급 세미나(Advanced Seminar), 개별연구(Independent Study) 그리고 박사세미나(Doctoral Seminar) 등의 과정이 학제적 연구로 인한 그 범위가 기술 분야로도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미의 iSchool 대학들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iSchool 17개 대학 집단의 개설 교과목을 8개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해당 지역 iSchool 미진입(즉, L-School) 17개 대학 집단의 교육과정과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교육과정 비교분석(t검정) 결과 iSchool대학은 ‘정보학’, ‘실습·연구’, 그리고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에서 L-School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면에 L-School 대학은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에서 iSchool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chool 대학 집단의 영역별 개설 교과목

비율은 ‘정보학’(32.14%), ‘실습·연구’(16.61%),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16.44%), ‘정보조사제공학’(15.53%), ‘기록관리학’(6.18%), ‘문헌정보학일반’(4.08%), ‘정보조직학’(3.90%), ‘기타’(2.87%), 그리고 ‘서지학’(2.24%) 영역 순위로 나타났다.

둘째, L-School 대학 집단의 영역별 개설 교과목 비율은 ‘정보조사제공학’(26.00%), ‘정보학’(18.88%), ‘실습·연구’(13.71%), ‘문헌정보학일반’(11.46%),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10.34%), ‘기록관리학’(7.75%), ‘정보조직학’(6.74%) 그리고 ‘서지학’(4.19%) 영역 순위로 나타났다.

셋째, iSchool 대학 집단과 L-School 대학 집단 간의 교육과정 차이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은 L-School 대학 집단이 대체적으로 iSchool 대학 집단의 그것보다 높았고, 반면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그리고 ‘실습·연구’ 영역은 iSchool 대학 집단이 대체적으로 L-School 대학 집단보다 비율이 높았다.

넷째, 하지만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서지학’, 그리고 ‘기록관리학’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정보기술 변화는 기존 문헌정보학의 소멸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과 진화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다. 2003년에 공식적으로 탄생된 iSchool은 이러한 기회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iSchool형태의 학제적 연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하려는 실천의지와 문헌정보학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심도있는 관찰이 요구되며 향후 한국형 iSchool로서의 발전 방안 모색과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정보전문가 양성에서도 긍정적인 시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미 iSchool 대학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일차적인 수준으로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가 세계 문헌정보학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그 변화를 주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보다 풍부한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전 세계 iSchool로 확대해서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iSchool대학과 L-School대학 교수진의 전공영역과 연구분야에 대한 비교연구, 나아가 국내대학과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iSchool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남영준, 허운순. 2005.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39-64.
- [2] 노영희, 안인자. 2009.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변화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29-450.
- [3]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55-82.
- [4] 박일중. 2000.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97-221.
- [5] 엄영애. 2009.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09-427.
- [6] 이승채. 2012.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341-363.
- [7] 장윤금.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317-340.
- [8] 정재영.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5-223.
- [9] 최상기, 안인자, 노영희, 김주섭. 2011. 북미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 사례 분석 I.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145-167.

- [10] Andrea, W., & Sawyer, S. 2012. "Intellectual Diversity and the Faculty Composition of i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1): 8-21.
- [11] Wu, D., He, D., Jiang, J., Dong, W., & ThienVo, K. 2012. "The State of iSchools: An Analysis of Acade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8(1): 15-36.
- [12] Chen, C. 2008. "Thematic Maps of 19 i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5(1): 1-12.
- [13] King, J. L. 2006. "Identify in the i-School movement." *Bulletin of the ASIST*, April/May 2006.
- [14] Bonnici, L.J., Subramaniam, M.M., & Burnett, K. 2009. "Everything Old is New Agai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263-274.
- [15] Harmon, G. 2006. "The First I-Conference of the I-School Communities." *Bulletin of ASIST*, April/May 2006.
- [16] Olson, G.M., & Grudin, J. 2009. "The Information School Phenomenon." *Bulletin of Interactions*, March/April 2009.
- [17] Lopatovska, I., Pattuelli, M.C., Bates, M.J., Buckland, M., Dalbello, M., Hastings, S., & Giannini, T. 2012. "iSchools and L-Schools: Converging or Diverging Communiti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9(1): 1-3.
- [18] iSchools Directory. [online]. [cited 2013.7.13]. <<http://ischools.org/directory>>.
- [19] iSchools Homepage. [online]. [cited 2013.7.13]. <<http://ischools.org/about/history/origins>>.
- [20] US News & World Report. [online]. [cited 2013.2.2].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graduate-schools/top-library-information-science-programs/library-information-science-rankings?int=53fcad>>.
- [21] Wikipedia. [online]. [cited 2013.3.15]. <<http://en.wikipedia.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m, Young-Joon, & Heo, Oun-Soon. 2005. "A Study on the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ject Specialis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39-64.
- [2] Noh, Younghee, & Ahn, In-Ja. 2009. "A Study on Analyzing the Translation of Curriculum

-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29-450.
- [3] Noh, Younghee, Ahn, In-Ja, & Choi, Sang-Ki.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Operating Model and Standard Courses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55-82.
- [4] Park, Il-Jung. 2000. “A Study of the present status and curriculum reform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197-221.
- [5] Um, Young-Ai. 2009.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09-427.
- [6] Lee, Seung-Chae. 2012. “A Case Study of USC SLIS for Improv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341-363.
- [7] Chang, Yunkeum. 2011. “Comparative Study of the Changes in LIS Education in Korea, U.S.A. and Australi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Information Science*, 22(4): 317-340.
- [8] Chung, Jae-Young. 2011.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ocusing on the Reference Service Curriculum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05-223.
- [9] Choi, Shang-Ki, Ahn, In-Ja, Noh, Younghee, & Kim, Ju-Sup. 2011. “An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in North America: Focusing on Subject Modul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Information Science*, 22(4): 145-167.